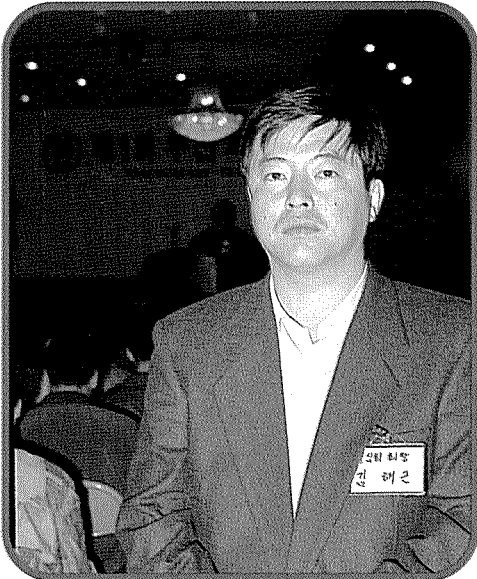


“부산과업인들의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일심회 김해근 회장

부산 과업인 합동 수련회가 지난 11월 1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 환타시아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생산 현장에서 땀흘리는 기술인을 중심으로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업주들까지도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같이 호흡하고 뛰면서 모처럼의 즐거운 잔치 한마당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제과 기술인들의 모임인 일심회가 대한제과협회 부산지회 후원으로 개최했다.

일심회 김해근 회장(파리장제과 공장장)은 “최근 부산의 제과 기술수준이 몇 년전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지만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기술의 향상만이 아니고 한 사람의 어엿한 장인으로서 거듭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첫 시작이어서 서툴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기술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런 수련회를 갖는다는 것은 꽤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갖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열자고 한 것은 금년 1월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시작하려니 일심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산의 모든 과업인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비용도 문제가 되고 프로그램 구성에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합동 수련회에 관한 모든 사항이 결정된 것은 지난 9월. 그로부터 2개월간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김회장은 행사를 알리고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그야말로 발에 땀이 나게 뛰어 다녔다.

부산의 1400여군데나 되는 제과점 중에서 절반은 일일이 우편으로 행사를 알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지만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일심회 단독으로는 아무래도 힘이 벅차 부산지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지회 오주복 지회장님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발벗고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선배 기술인들도 기꺼이 여러 가지의 조언과 충고도 아끼지 않았구요”

이번 행사는 관련업체들의 찬조를 전혀 받지 않고 치루어졌다. 김회장은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들이 5년간 모임을 하면서 조성된 기금과 참가자들에게 받는 회비로 충당했다”고 밝히고 “만일 부족하면 회원들끼리 주머니를 털어서 나누어 지기로 책임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행히 선배 기술인과 다른 단체의 지원으로 비용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사용된 비용에 대한 결산자료 외에도 수련회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부산지역 제과인들에게 전부 알릴 예정입니다. 결국 이 행사의 목적이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작된 일이니 만큼 참석치 않은 과업인들에게도 자료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수련회 참가자들의 반응이 생각외로 너무 좋아 앞으로는 매년 가을에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수련회를 개최할 것”이며 “진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 더 충실한 내용으로 과업인 잔치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